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금주미사 독서: 김정기 토마스아퀴나스, 윤여진 엘리사벳

다음주 미사 독서: 유현영 사도요한, 이지원 사비나

금주미사 복사: 우상인 사비나, 강선우 마르가리타

다음주 미사 복사: 이주현 안드레아, 이지은 윌프레드

금주 미사해설: 전은숙 글라라, 윤보연 소화테레사

다음주 미사해설: 김보미 로사, 윤지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유현영 사도요한

친교실 정리: 1 구역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부터 미사 전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2월 10, 24 일)
성교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계시관 참조)
교리 모임	격주 토요일 2시 45분 성당친교실 (2월 4, 18 일)
기타 모임	격주 금요일 8시 홍진국 클레멘스 형제님 집 (2월 3, 17 일)

† <구역모임 알림판>

1 구역	미정
2 구역	매달 첫째주 토요일 미사후
대학원 구역	1월 28일 토요일 미사후 (조성익 형제님 집)
학부생 구역	미정

† 오늘의 묵상

예수님께서서는 회당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이 말에서 우리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과 아무 상관 없이 살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자기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카파르나움 회당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회당에 와 있다는 것은 평소에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회당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신자 아닌 사람만 더러운 영이 들린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신자일지라도 더러운 영이 들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름만 신자이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참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부족해도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말씀을 듣고는 무언가 깨닫고 새롭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신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들을 때 생활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그리고 그런 영혼이 건강한 영혼입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의 소문이 곧바로 온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된 흐뭇한 우리 모습이 주변에 널리 퍼져야 하겠습니다.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 헌 금: \$254

교 무 금: \$600

합 계: \$ 854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희 베르나르도 (512) 698-6379

성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매디슨 한인천주교회 Facebook 그룹: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210193849001633

[연중 제 4 주일(해외 원조 주일)]

2012년 1월 28일

<제 1 독서> 신명기, 18, 15-20

<제 2 독서> 코린토 1 서 7, 32-35

화답송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하지 마라.”
- 어서 와 주님께 노래 부르세. 구원의 바위 앞에 환성 올리세.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세. 노래하며 그분께 환성 올리세. ◎
- 어서 와 엎드려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 우리는 그분 목장의 백성,
그분 손이 이끄시는 양 떼로세. ◎
-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므리바에서처럼, 마싸의 그날
광야에서처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 조상들은
나를 시험하였고, 내가 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떠보았다.”◎

복 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 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네.
- ◎ 알렐루야.

복 음

마르코복음 1, 21-28

카파르나움 마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 학자들과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 된 일이나?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이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28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래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 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영성체송]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오늘의 성가] 시작: 15

봉헌: 210

성체: 156

파견: 437



생명의 말씀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서공석 신부 (부산교구)

오늘 복음은 어느 안식일에 카파르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습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더러운 영이 예수님의 신원(身元)에 대해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함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영을 내어 쫓아서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고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경탄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오늘의 신문 기사와 같은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은 정신 질환자를 지칭합니다. 복음서들이 기록된 시대에는 자기 사상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야기를 만들어 그 안에 자기가 전하고 싶은 사상을 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다른 이들에게 옮기면서, 그 이야기 안에 있는 저자의 사상에 공감하고 자기 것으로 삼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마르코복음서를 기록한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리스도 신앙을 담아서 각색한 것입니다.

마르코복음서는 그 시작에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초기 신앙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을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끝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예수님을 마주 보고 서 있던 백인대장”이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15,39)고 신앙고백을 한 것으로 기록하였습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신앙고백을 그 시작과 그 마지막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하겠다는 의도로 저술한 복음서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문제들을 흔히 생로병사라는 단어로 요약합니다. 사는 것, 늙는 것, 병고 그리고 죽음, 인생의 네 가지 현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대단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지만, 불가사의(不可思議)하여, 인간 번뇌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석가세존(釋迦世尊)으로 추앙받는 고오타마 싯달타 태자(太子)가 일찍이 왕위를 버리고 출가(出家)하여 수도(修道)를 시작한 것도 이 네 가지 번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인류역사가 있으면서 각양각색의 종교들이 발생하고 번창한 것도 바로 이 네 가지에 대한 해답을 인류는 꾸준히 찾았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해를 보고, 혹은 달을 보고 빌기도 하였고, 정화수를 떠놓고 정성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불가사의한 주제들에 대한 해결 혹은 극복을 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 이야기의 무대는 유대인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회당입니다. 그 곳에서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지르며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함구령을 내리면서 그 더러운 영을 그 사람에게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나았습니다. 이 복음서는 이 이야기로 더러운 영이 지배하던 세상에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하신 분, 곧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지만, 더러운 영은 벌써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사람들이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근거가 되어 오늘의 세례 성사 의례 중 마귀를 쫓아버린다는 신앙고백을 하는 관습이 생겼습니다. 하느님이 아니면서 사람을 지배하는 모든 것을

(옆면에 이어서)

† 공지사항

- 오늘 미사 후 공동체 식사는 1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 오늘 미사 후에 사목회의가 있습니다.
- 다음 주 (2월 4일) 미사 때, 새 사목회 구성을 위한 사목위원 투표가 있습니다.
- 강연 안내: Chicago Theological Seminary 에서 성서학을 가르치시는 양승애 교수님의 강연이 있습니다. 성서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알아 보는 시간이 될 것 입니다. 어렵게 모셨으니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합니다. 2월 25일 오후 3시 30분. 성당 친교실 입니다.

세례에서 끊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은 더러운 영에게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함구령을 자주 언급합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혹은 기적적으로 치유된 이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함구령을 내리십니다. 이 복음서는 사람이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 혹은 거룩하신 분 등, 신앙고백의 성격을 지닌 말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리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자 이 복음서는 백인대장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서,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신앙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십자가의 죽음을 시야에서 잃지 않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는 십자가를 포함하여 예수님을 인식해야 하고, 그 인식을 기반으로 그분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요약하는 상징입니다. 사람들을 보살피는 일에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으신 결말이 십자가였습니다. 마르코복음서는 그 사실을 모르면,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십자가에 이른 그분의 삶이 하느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전능하시고, 지고하시다는 우리의 통념에서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예수님 혹은 하느님을 믿어서 인간이 더 잘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더 많은 재물과 더 존경스런 지위를 얻도록 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류역사가 하느님을 생각하며, 계속 품었던 염원입니다. 그 염원은 인간을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 염원을 성취해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망상하는 것은 예수 귀신의 힘으로 팔자 한 번 고쳐 보겠다는 인간의 염원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인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이라 고백합니다. 생로병사의 인간 현실을 살면서 이웃을 보살피는 섬김을 위해 당신 스스로를 내어주고 쏟은 예수님입니다. 그분의 실천에서 참다운 인간의 자유를 읽어내고, 그것을 배우는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지위든, 자기 한 사람 잘 될 것을 약속하는 더러운 영이 물러나는 곳에, 예수님이 가르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이 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 그분의 자녀 되게 하는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는 고백입니다.